

불교를 통해서 바라본 현대 기술문명*

吳進鐸**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대 기술문명의 명암
3. 또 다른 삶-티베트의 경우
4. 대안적 삶에 대한 불교적 모색
5. 맺음말을 대신해서

1. 들어가는 말

현대의 기술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문명의利器를 제공함으로써 물질 생활의 측면에서 삶을 개선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중한 많은 것을 잃게 하였다. 단적으로 OECD에까지 가입한 오늘의 한국은 생활의 질이라든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50년대, 60년대보다 높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1997년 말에 터진 경제위기 등으로 해서 현대인의 긴장된 삶은 그 정도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1998년 8월 27일자 일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IMF체제는 실직고민과 직장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죽음을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현장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뇌·심장·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도 자유공모과제(공동연구) 연구비지원을 받은 논문임.
** 한림대 철학과 교수.

뇌졸중·심장마비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있는 질병의 사망건수는 1997년 같은 기간의 289건보다 16%나 늘어난 336건에 이르렀다. 이는 1997년 과로사 사망건수가 660명으로 96년의 601명보다 9.8%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중풍 등 중병으로 '경제활동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D건설의 인천 현장사무소에서 2년 6개월간 숙식하며 건설일용직으로 일해 온 20대의 젊은이 박형도씨는 중풍으로 노동력을 잃었다고 한다.¹⁾

그러니까 현대인의 심리적 부담감은 날이 갈수록 더 한층 심각해지는 추세여서 心因性 질환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심인성 질병의 증가만이 아니라 IMF체제에 편입된 이후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넘어서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98년 3월말 현재 전국의 자살자는 총 2288명(하루평균 25.4명)보다 250명이나 많으며 자살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앞지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997년 자살자 숫자는 7384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만 1603명보다 훨씬 적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집계에 따르면 1998년 4월까지 관내의 자살자 147명(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68명)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람이 전체의 34%인 51명으로 1997년 같은 기간 동안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 10명보다 5배 이상이나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IMF형 자살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자살충동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경 영등포 수상구조대에 따르면 1998년 최근 들어 한강지역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한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²⁾

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은 생활의 긴장도가 점점더 심해지고 더

1) 『중앙일보』, 1998년 8월 27일.

2) 『중앙일보』, 1998년 5월 12일.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니까 암·에이즈·당뇨병·고혈압·뇌졸중 등 문명병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문명은 급속히 성장했고, 특히 화학공업의 발전은 엄청난 양과 종류의 화학물질을 인간사회에 가져다주었다. 이 새로운 문명의 은혜는 사실은 거꾸로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환경성 암 또는 직업성 암에 관해서도 이미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 문명세계에 새로운 물질이 하나 추가될 적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하나 더 생겨난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불치병 역시 함께 늘어만 가는 셈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발암물질의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조차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바다에서 한두번 헤엄친다고 암에 걸린다는 말은 아니다. 매일매일, 몇 년이고 헤엄치다 보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발암물질에 접촉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외인성 암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 또한 직업성 암은 직접 발암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³⁾

오늘날은 모유에서 DDT가 나오는 시대이다. 또한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서까지 무서운 화학물질이 검출된다.

25년 전까지는 어린이가 암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사망원인중에 제1위가 다른 질병도 아닌 암이다. 그리고 1세부터 14세까지 어린이들의 사망원인중 12%가 암인데, 그것도 5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특히 악성종양이 많다.⁴⁾

보다 놀랄 만한 일은, '태어났을 때,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암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어떤 병리학자는 "선천적인 암이나 어린이의 암은 어머니가 임신중에 접촉했던 발암인자가 태반을 뚫고 들어가서 발육중인 태아의 조직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최근 이것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동물실험을 통해 분명해졌다. 어느 국제 암 심

3) 황삼익 편저,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245~248쪽.

4) 황삼익 편저, 앞의 책, 248쪽.

포지움에서, 독일의 연구팀은 방부제나 착색료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화학 물질들은 각각 단독으로는 심각한 영향은 없지만, 이것들이 체내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 놀라움을 신문과 잡지들은 '문명이 만드는 발암물질'이라는 표제로 실은 적이 있다. 일찍이 이 문명사회에는 병원균이 우글우글거렸다. 이제는 발암물질의 홍수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윤택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암을 비롯한 문명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등 죽음이 현대인의 삶에 더 한층 근접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또한 가스폭발사고라든가 대형참사로 인해 자신이 직접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어도 죽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현대인은 문명의 이기에 도취된 채 이처럼 코앞에 닥친 죽음을 준비한다든가, 삶을 보다 의미있게 영위함에 대해 거의 고민을 하지 않는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보고서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대학의 로버트 우스터 객원교수는 최근 전세계 54개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가난한 나라가 상위권을 휩쓴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들이 최하위권으로 처졌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제3세계 주민들은 가족과 친구·이웃 등과 인정넘치는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느끼고 이것이 삶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⁶⁾ 그러니까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해 더 한층 편리한 문명의利器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다고 해서 보다 의미있고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황상의 편저, 앞의 책, 250쪽.

6) 『중앙일보』, 1998년 12월 11일자에 보도된 국가별 국민행복감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방글라데시, 3위 나이지리아, 5위 인도, 8위 중국, 10위 터키, 12위 남아공, 18위 멕시코, 23위 한국, 32위 영국, 37위 프랑스, 41위 스위스, 42위 독일, 44위 일본, 46위 미국 ….

2. 현대 기술문명의 명암

사실, 현대인이 처한 이와 같은 한계상황과 관련해서 불교경전에 제시된 '井藤의 譬喩'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아주 먼 옛날, 어떤 사람이 광야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나운 코끼리가 나타나 그를 쫓았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마른 우물 속에 간신히 몸을 피했다. 우물 곁의 큰 등나무 뿌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닥을 보니 毒龍이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깜짝 놀라 나무 뿌리에 매달려 우물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에서 네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대며 노려보고 있었다. 하얗게 질린 그가 위를 쳐다보니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 뿌리를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잡아먹고 있고 먹이를 놓친 코끼리는 더욱 성을 내고 있었다. 벌판을 휩쓰는 맹렬한 들불은 등나무를 태우고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벌들이 흩어져 내려와 그의 온 몸을 쏘아댔다. 그런데 그 때 나무에서 뭔가가 떨어져 그의 입 속으로 흘러들었다. 맛을 보니 달콤한 꿀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을 잊어버린 채 다섯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꿀을 받아먹는 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⁷⁾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한 다음, 광야는 생사윤회의 無明의 長夜를,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을, 코끼리는 無常을, 우물은 生死를, 나무 뿌리는 수명 또는 命運을, 독룡은 죽음을, 네 마리의 독사는 地·水·火·風 四大를,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즉 세월)을, 들불은 老와 病을, 벌은 그릇된 생각(邪思)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다섯 방울의 꿀은 五欲樂을 의미하는데, 현대문명의 利器를 누림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은 자신이 처한 처지도 이처럼 극한상황도 잊

7) 本緣部の『佛說譬喩經』(『大正藏』4권, 801쪽 中).

어버린 채 문명의 이기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꿀을 받아먹는 데만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대인이 제공하는 안락한(?) 듯한 생활은 '井藤의 비유'가 시사하듯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잃어버린 채 문명의 이기가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꿀에만 정신팔려 있는 삶일 수 있다. 석가모니가 2500여 년 전 이 비유를 통해 인간이 사는 모습은 은연중에 적시했지만, 그 의미는 현대인의 삶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은 1997년 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무한경쟁과 물질만능의 풍조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위로 높이 솟구치는 빌딩을 만드는 쾌감에 걸린 우리는 모래 위에 다 집을 짓고 있는 셈이다.⁸⁾ 죽음이 문명생활의 안락함이란 환상을 무너뜨려 우리를 좇아낼 때까지 이 세계는 기묘하게도 튼튼한 듯 보일 수도

8) 자본주의 문명이 파생시킨 정보·정보고속도로·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 허우성은 다음같이 말한다. "정보사회란 우리를 그물망 속에 가두어두려는 세계, 그럴듯하지만 바로 보면 진실이 아닌 사이버의 세계가 아닐까? 정보사회는 경제활동에서 상품 및 부가가치 증대수단으로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정보화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윤을 끊임없이 창출하려는 기업이다. 정보사회는 정보·소비·광고 등의 개념들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범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자본주의 문명, 즉 소비와 경쟁을 앞세우고 그 안에 폭력을 담고 있는 자본주의 문명의 일부이다. ... 석가모니는 감각의 쾌락과 사물에서 얻는 행복이 사실상 부자유와 고통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쳤다. 불교의 목표는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의 지평에 욕망의 대상이 될만한 것을 제거하여 독립과 평안을 가르쳐 주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런데 정보사회의 목표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즉 전자적인 '有'라는 애욕의 대상을 생산하고, 그것을 전 지구적인 통신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소비하도록 유혹하는 데에 있다. 정보란 그 본성상 '眼·耳·鼻·舌·身·意'라는 여섯 감각 기관들(六入處)에 호소하는 잡다한 '多'로서 인간의 의식을 헛갈리게 하며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이고, 정보사회는 중생계가 그러하듯 사이버, 또는 도깨비(幻)의 세계이다. 게다가 유혹과 기만의 힘이 질적으로 강화된 사이버 세계이다... 사이버 스페이스(假想空間)는 진실의 모습을 잠시 빌린 세계, 실체가 아니지만 실재로 간주되는 세계이다. 즉, 가상세계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만들어진 거짓된 ..., 그럴듯하지만 진실이 아닌 세계이다. 사이버 세계이다. 도깨비 장난 같은 세계이다"(허우성, 「정보사회의 사이버성: 불교적 비판」, 53~64쪽).

있다. 죽을 때 우리는 모든 것, 특히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게 맹목적으로 의존했던 문명의利器, 또한 그렇게 열심히 계속 살아 있게 하기 위해 애썼던 이 육신을 뒤에 남기고 떠난다. 또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쓸새없이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벼룩처럼 보여질 것이다. 생각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 것과도 무관하게 솟아날 것이다. 순간순간 혼란에 휩쓸릴 때마다 우리는 번덕스러운 마음에 끌려다니게 된다. 우리에게 친숙한 의식상태가 오직 이것에 불과하다면, 죽는 순간 자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도박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 일화가 또 있다. 붓다와 같은 시기에 사는 큰 행운을 누렸던 젊은 여인 크리샤 고타미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첫아이가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병들어서 죽었다. 비탄에 빠진 그녀는 아기의 시신을 끌어안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아기를 되살리는 약을 간청하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어떤 사람은 그녀를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그녀를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내 어떤 현자를 만났더니, 세상에서 그녀가 찾고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석가모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석가모니를 찾아가 석가모니의 발 밑에 두고 아기의 시신을 내려놓고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석가모니의 무한한 자비심을 지니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에 들어가서 죽음을 겪지 못한 집이 있거든 거기서 겨자씨 하나만 가져오세요.” 크리샤 고타미는 신이 나서 곧바로 시내로 들어갔다. 그녀는 처음 만난 집에서 발을 멈추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제게 죽음을 겪어본 적이 없는 집을 찾아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음의 답을 들었다. “이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옆집으로 갔더니 그들이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세번째와 네번째 집에도 갔고,

그녀는 온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결국 석가모니의 말씀대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없음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시체를 납골당에 가져가서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고, 곧 이어 석가모니에게 되돌아왔다. 석가모니가 물었다. “겨자씨를 가져왔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저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자식을 잃은 비통함으로 인해 저는 눈이 멀어 단지 저 하나만이 죽음의 손아귀에서 신음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말했다. “왜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녀가 답했다.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의 이면에 또 죽음을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이 죽지 않는지 부처님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그녀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삶과 죽음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다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숙고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변치 않는 단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 즉 윤회의 세계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바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탈에 이르는 것이 윤회라는 생사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 단 하나 유일한 길입니다. 고통을 겪음으로써 당신은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고 당신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열려 있으므로,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크리샤 고타미는 석가모니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석가모니를 따르게 되었다. 석가모니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⁹⁾ 예컨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게되자 미친 듯이 거리를 떠돌아다닌 고타미는 바로 현대인의 삶을 상징해 주는 듯하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만 죽음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서, 아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기 자신의 죽음은 무

9) Sogyal Rinpoche,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28~29쪽.

엇을 뜻하는지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떠돌아 다녔던 것이다. 현대문명에 휩쓸려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 역시 고타미의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타미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인 역시 안락한(?) 듯한 문명생활을 탐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현전하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예컨대 1976년 뉴욕에서 뒤쫓 린포체를 찾아온 중년의 미국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불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시내에 뛰어난 스승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매우 아팠다. 병세가 매우 절망적이어서 그녀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자 했다. 심지어 티벳의 스승까지도 찾아볼 정도로!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뒤쫓 린포체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기의 병세가 심각하고 또 그와 함께 있게 되니까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녀가 불쑥 말했다. “의사가 앞으로 몇 달 못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놀랄 정도로, 뒤쫓 린포체는 부드럽고도 자비심이 충만하게 께께 웃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게 될 뿐입니다.” 이런 몇 마디 말로 그는 누구나 죽는다는 원리를 그녀에게 제시했고, 죽음에 임박한 것은 그녀만이 아님을 알게 했다. 이런 말에 의해 그녀의 근심은 덜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는 과정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죽음과 함께 있는 희망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을 치유하는 수행을 제시했고 그녀는 열심히 수행을 닦았다. 이 여인의 경우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에 쫓기게 되었지만 린포체의 가르침에 힘입어 그녀는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헌신적으로 수행을 닦았기에 그녀의 병은 치유되었다.¹⁰⁾ 이 미국 여인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절망감

10) Sogyal Rinpoche, 앞의 책, 30~31쪽.

에 빠졌지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단지 시간적 선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죽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현대인도 현대문명의 이기가 제시하는 벌꿀만 받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현전하자 크게 절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티베트의 소갈 린포체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현대문명이 가장 위대하게 이룩한 것은 윤회와 무미건조한 번잡함을 번지르하게 판매한다는 점에 있다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현대사회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것, 진리를 살아남기 어렵게 꺾박하는 온갖 것, 그리고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조차 힘들게 하는 온갖 것을 찬양하는 듯이 보인다. 모든 것이 생을 찬미하는 현대문명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문명은 사실상 삶으로부터 실제적인 어떤 의미도 빼앗아 버린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현대문명은 진정한 기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¹¹⁾

11) Sogyal Rinpoche, 앞의 책, 20쪽. 20세기 영국의 학자 Evans-Wentz가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소개한 이후 티베트 불교에 1천여 년간 축적된 죽음과 관련된 실제 수행체험과 그 지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통한 Sogyal Rinpoche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처음 서양사회에 도착했을 때, 그 때까지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새로 마주치게 된 서양 사람의 그것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나는 크게 쇼크를 받았다.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서구사회는 죽음이 라는가 죽어 가는 과정 또는 죽음 이후 무엇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죽음을 부인하게끔 교육받았으며 죽음은 상실과 소멸을 뜻할 뿐이라고 배웠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세상사람 대다수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죽음의 공포아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건전하게 간주되고 단지 죽음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죽음에 맡기는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고 믿는다. 무슨 연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란 모든 권리를 다 써버리는 것이고 또한 아무 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식으로 소박하면서도 분별없이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적에, 나는 티베트의 한 고승의 말이 회상된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하찮게 여겨 다음같이 생각한다. '그래,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은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가 죽을 때까지만 통

예컨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인간관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전에 없었던 문명병이 자꾸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어째서일까. 티베트의 라다크가 가르쳐 준 가장 충격적인 교훈의 하나는 현대세계의 도구와 기계들이 그 자체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들이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티베트의 마르카계곡에서 온 한 친구가 한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도에서 살고 있는 나의 언니는 일을 더 빨리 해주는 온갖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옷은 상점에서 사기만 하면 되고, 지프차·전화·가스쿠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시간을 절약해 주는 데도 언니를 만나러 가면 나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대요.”¹²⁾

물론 전통적인 방법으로 땅을 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에이커를 가는 데 반나절이 걸릴 것이다. 트랙터로 반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에 왜 반나절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나 진리는 현대문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빠른 기술이 결국은 시간을 절약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통적 경제에서 시간은 넉넉했고 오직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았다. 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활은 인간적인 속도로 진행되었고, 누구든지 인내심을 가질 여유가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현대경제는 시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어 놓았고, 갑자기 시간은 물량화되고 잘디잔 조각으로 나누어졌다. 시간은 값비싼 물건이 되었고,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을 갖게 됨에 따라 삶의 속도는 더 빨라졌을 뿐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삶의 진행속도는 너무 빨라서 거기에 휩쓸려 다니다가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결국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을 맞는다. 예컨대 지난 이십여 년간 춘천을 중심으로 암 말기 환자·임종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을 이끌어왔던

용될 뿐이다”(앞의 책, 7~8쪽).

12)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113쪽.

아일랜드 출신의 노라 수녀의 증언에 따르면, 무수한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죽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더욱더 많은 재산, 더욱더 많은 물품, 더 한층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여 우리는 결국 이것들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은 단지 이것들을 유지하는 데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인 안락한 듯한 우리의 생활은 죽음과 더불어 일거에 종결된다. 소갈 린포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끝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번영이 정신적·사회적 빈곤,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생명력의 상실을 대가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3. 또 다른 삶—티베트의 경우

현대인의 이러한 정신적 황폐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티베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라다크에서 가장 존경받는 불교철학자 타시의 다음 같은 시는 현대사회와 티베트의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준다. 타시의 큰 얼굴은 계속해서 미소로 빛났고 넘치는 활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타시에게는 따분한 일이라곤 없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라다크어 동사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넘치는 기쁨을 불어넣었다. 불교 철학자인 그는 라다크 전역에서 시와 노래로 유명했다.¹³⁾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그는 그녀에게 다음 같은 시를 적어주었다고 한다.

13)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앞의 책, 19쪽.

당신이 태어난 위대한 유럽에는
 많은 자유국가가 번성하고 있다.
 막대한 물질적 번영과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는 지상의 기쁨도 더 크고
 바쁜 생활도 더하다.
 과학도 문학도 더 많고
 사물의 변화도 더하다.

이곳의 우리에게 진보는 없어도
 복된 마음의 평화가 있다.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도
 더 깊은 법의 길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도 있고
 부유함이 주는 즐거움이 넘칠 수도 있다.
 위대한 명성과 권세도 누릴 수 있지만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필경 빼앗아가 버린다.

죽음의 시간에, 쌓아온 행적 말고는
 한 조각의 부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선하고 악한 행동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만들어낸다....¹⁴⁾

타시가 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대한 유럽' 그리고 서양식 현대 문명을 따르는 나라에는 '막대한 물질적 번영과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그 곳에는 지상의 기쁨도 더 크고 바쁜 생활도 더하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도 있고 부유함이 주는 즐거움이 넘칠 수도 있다.' 그러나 티베트의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 진보는 없어도 복된 마음의 평화가 있다.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도 더 깊은 법의 길을 가지고 있

14)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앞의 책, 19~20쪽.

다'고 그는 노래했다. 타시의 시와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도 “많은 티베트인들은 물질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욕망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소박함과 가난 속에서도 서구의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다”¹⁵⁾고 말했다.

히말라야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티베트의 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팜이었다. 그는 시계·대포·비행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완성되자마자, 그것들은 보다 큰 번잡함의 원인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곧바로 파괴시켜 버렸다.¹⁶⁾ 물질문명의 이기가 떨구어 주는 한 방울 꿀에 탐닉하는 현대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미팜의 이런 행동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이런 정신적 배경이 있었기에 미팜은 기계를 발명하자마자 파괴시킬 수 있었고, 또한 티베트 사람은 욕망의 희생자로 전락하기보다 소박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더 큰마음의 평화를 지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¹⁷⁾

타시도 시에서 “죽음이 그 모든 것을 필경 빼앗아가 버린다”고 읊었지만, 티베트 사람과 현대인 사이에서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이다. 티베트어로 몸은 ‘뤼’라고 불리는데,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것’을 의미한다. ‘뤼’라고 말할 때마다, 티베트인들은 인간이란 이 삶과 이 육신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인과 커다란 차이

15) 크리스토퍼 거브, 『달라이 라마』, 20쪽.

16) Sogyal Rinpoche, 앞의 책, 20쪽.

17) 이와 관련하여 티베트의 라다크의 개발관의 다음 발언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라다크를 개발하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지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처음 라다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개발 담당관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여가나 즐거움을 희생시킬 생각이 없었다. 개방 초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지않아서 관광객들은 당황했다. 여러 해의 개발이 있는 다음 지금은 돈을 버는 일이 제일 큰 관심사로 되었다.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오래된 미래』, 147쪽).

가 난다. 티베트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보다 편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시간을 소모하는 번거로운 일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은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 등을 덮을 정도의 의복, 그리고 머리를 덮을 정도의 지붕만 갖춰진다면 만족했다. 우리가 지금같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외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애쓴다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을 맞게 되면 끝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신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호텔에 투숙할 때마다 호텔방을 괴팍스럽게 다시 장식하려 하겠는가?¹⁸⁾ 그러므로 현대인의 삶과 티베트 사람의 그것이 크게 상이한 형태를 띠는 것은 단적으로 죽음 이해로부터 연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라다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행복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라다크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을 같이 생활한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하고 구김없는 수용이었다. 라다크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타고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공동체와 땅과의 긴밀한 관계가 물질적인 부나 고급기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삶에 있어서 현대문명이 지향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¹⁹⁾ 현대인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문명의 이기와 더불어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인 줄 알고 있다. 예컨대 TV·냉장고·자동차·컴퓨터가 없는 생활을 현대

18) Sogyal Rinpoche, 앞의 책, 20쪽.

19) 태국의 불교운동가 슈락 시바락사는 이렇게 말한다. "IMF구제 금융사태는 다행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태국과 한국이 잇따라 구제금융체제 관리 아래 들어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두 나라가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전기를 맞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계 자본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태국과 한국이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는데 불교인들이 큰 힘을 보태야 한다." 소비주의 모델에서 불교적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그는 일반 대중의 각성을 끌어내기 위해 대안교육운동과 대안언론운동 등을 모색하고 있다(『태국의 불교·환경·평화운동가 슈락 시바락사』).

인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이 왜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지, 어째서 그토록 험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한 수준의 안락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녀는 직접 목격하고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대문명이 지향하는 방식만이 유일하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점증하는 지배력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고 있다. 그러나 라다크 사람들은 억누를 수 없는 삶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의 기쁨의 느낌은 너무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다크에서 조금이라도 지내면 전염성이 강한 그들의 웃음에 감염되고 만다. 그들의 만족과 마음의 평화는 현대문명을 비롯한 그런 외부의 상황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내면으로부터 온다. 라다크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 주위와의 관계는 내면의 평정과 만족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티베트는 사람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배부르더라도 그가 '無知'한 한 행복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라다크 사람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불교 가르침에 입각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으로부터 연유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²⁰⁾

또한 달라이 라마도 이와 관련해서 다음같이 말한다.

티베트와 그밖의 히말라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다크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방해받지 않고 자족적인 생존을 영위해 왔다. 혹독한 기후와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립에서 오는 검소한 생활에 기인하고 또 압도적

20)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앞의 책, 90~94쪽.

으로 불교적인 문화에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개발과 배움이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일어나서는 안된다. 라다크와 같은 전통사회의 사람들 속에는, 흔히 내면적 발전 즉 따뜻한 마음씨와 만족감이 있다.²¹⁾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지적하듯이, 현대문명은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뿐 개개인의 내면적 발전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천박한 物神主義만 횡행하게 되었다. 현대문명이란 가계에서 온갖 문명의 利器를 살 수는 있으니까, 따라서 현대사회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만을 중시하는 풍조가 형성되었지만, 그 결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예컨대 따뜻함이라든가 자비는 홀대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4. 대안적 삶에 대한 불교적 모색

현대문명과 앞에서 살펴본 티베트 사회는 여러 가지로 대조적이다. 예컨대 물질문명은 현대인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가져다준 대신 그 마음은 메마르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티베트 사람들은 지극히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매우 평온한 마음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이 죽음에 직면해서도 이처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는 것은 달라이 라마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지적대로 그들이 불교적 사유방식에 입각해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티베트 사람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현대인의 이런 삶과 관련해 張會翼은 다음같이 말한다.

한편 현대인류는 지금까지 이뤄온 기술문명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새 정신문화를 시급히 이룩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자멸이라는 상황에 처

21)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앞의 책, 3쪽.

하게 될지도 모를 무서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이라는 막강한 도구를 손에 들지 않았기에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절멸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끌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라는 도구를 손에 잡은 인류가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마치 실성한 사람이 무기를 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²²⁾

장희익의 지적대로 기술문명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손에 집은 인류가 만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마치 실성한 사람이 무기를 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와 다름없지 않을까? 비유컨대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돌진하는 형세라고²³⁾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이라는 막강한 도구를 손에 들지 않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절멸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이뤄온 기술문명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새 정신문화를 시급히 이룩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자멸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무서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희익은 인류가 기술문명에 버금가는 새 정신문화를 시급히 구축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기실 불교는 지난 2500여 년간 인간이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철학사상으로, 기술문명은 현대에 이르러 만개했지만 불교는 이미 2500여 년 전부터 고도로 정련된 정신세계를 구축해 왔다.²⁴⁾ 불교가 기본적으로 외적인 그 무엇을

22) 장희익, 『삶과 온생명』, 327쪽.

23) 예를 들어 1991년 10월 19일 사회의 냉대에 암시를 품은 한 청년(김용계)이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여의도 광장에서 '살인운전'을 해서 23명의 死傷者가 발생한 적이 있다.

24) 황상의 편저, 앞의 책, 250쪽,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 대규모로 암 진단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암 정복이 과학과 의학의 승리로 이야기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암에 걸리게 내버려 둔 다음 치료하기보다는 먼저 암에 걸리지 않도록 '문명'과 '사회'를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더욱 근본적인 치유책

쌓아나가기보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가르침임을 시사해 주는 예화가 있다. 석가모니는 바라나시 미가다야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고 나서 얼마간 그 곳에 머물렀다. 그 사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듣고서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은 60여 명에 이르렀다, 곧이어 석가모니는 그들을 사방으로 보내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퍼뜨리게 함과 동시에 석가모니 자신도 다시 우루베라를 향하여 전도의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도중 석가모니는 홀로 숲으로 들어가 한 그루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때 젊은이들이 무언가 매우 당황해 하면서 숲속을 우왕좌왕하다가 석가모니가 그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 곳으로 한 여자가 도망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그들은 그 부근 양가집 자제들로 약 30명 정도가 각각 아내를 동반하고 이 숲으로 놀러왔다. 그 중 단 한 사람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근처의 遊女를 아내 대신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이 숲에서 모두가 정신없이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에 그 유녀가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쳐 버린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사정을 듣고 석가모니는 그들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망친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이 큰 일인가?

이 질문은 그들의 의표를 꿰뚫었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놀다가 자신을 잊은 채 여자를 찾고 있던 그들은 석가모니가 그와 같이 물어오자 퍼뜩 정신이 들었다. “물론 자기를 찾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젊은이 한 명이 그렇게 답했을 때 석가모니는 “젊은이들이여, 그렇다면 모두 거기에 앉아보게나.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모두 그 곳에 앉자, 석가모니는 여느 때와 같이 정연하게 인생을 울

이 아닐까?”

바로 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불교가 내관(內觀), 즉 자기탐구의 가르침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일관된 설법, 즉 諸行無常, 一切皆苦, 諸法無我라는 三法印은 또한 현대문명의 경우에도 추호의 예외없이 적용되는 가르침으로, 현대문명이 예전에 비해 크게 발달되었다 해도 불교가 진단하는 인간의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알아야 되나니
 신기루 같고, 허깨비 같고,
 꿈같고, 구름으로 만든 성곽 같고,
 본성은 없으면서, 단지 그럴듯하게 보일 뿐...

모든 것이 이와 같음을 알아야 되나니
 말·소·짐수레, 그리고 다른 것을
 환영으로 보여주는 마술사와 같음을,
 그러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노라.²⁶⁾

25) 『법구경』 80에는 다음 구절이 있다. “물 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목수는 언제나 나무를 깎아 다듬는다. 이처럼 지혜로운 이는 자기를 다룬다.” 또한 『금강경』에서 제기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云何降服其心)”라는 질문 역시 자기마음을 다스려 스스로를 찾는 법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불교의 心地法門 역시 자기 탐구의 가르침으로 간주된다. 불교에서 상용하는 용어, “自燈明, 法燈明, 自歸依, 法歸依”에서도 초점이 자신을 진리의 등불로 삼아 자기에게 귀의하라는 뜻에서 ‘自’字에 맞추어져 있다. 선불교 역시 자기를 찾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컨대 화두중에서 “生滅未生前本來面目”, “父母未生前本來面目”도 자기를 회복함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선불교의 대표적 문헌 『임제록』에서도 다음같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바로 “참된 자기”이다. “그대들이 만약 나고 죽음과 가고 머무름을 벗어나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법문을 듣는 그 사람을 알도록 하라. 모양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머무는 곳도 없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 수만 가지로 응용을 하지만 그 응용에는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므로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할수록 어긋나니, 그것을 秘密이라고 부른다. … 그대들은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바깥으로만 분주히 허둥대면서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운다. 명칭과 글귀로 잘못 알고 불조를 구하며 선지식을 찾아 뜻으로 헤아린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 도 배우는 이들이여! 다만 한 부모 있었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구하는가? 그대들 스스로 돌이켜보아라 … 도 배우는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밖으로 찾지를 말라”(『임제록』, 45-58쪽).

26) Sogyal Rinpoche, 앞의 책, 38쪽.

현대문명이 제시하는 삶이 이전의 삶에 비해 안락한(?) 듯 여겨지지만, 석가모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지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다. 예컨대 현대문명이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일종의 메아리 혹은 호수에 비친 달에 불과하다. 그것은 흡사 “환영으로 보여주는 마술사와 같음”을 알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최근에 입적한 우리나라의 성철선사도 물질만능 위주의 현대문명은 커다란 병폐라고 지적, 깨끗하고 순진한 인간 본래의 마음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 일쑤라고 강조하면서 1982년 초파일 법어를 다음같이 내린 바 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져도 자기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유형·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본래 순금입니다. 욕심이 마음의 눈을 가려 순금을 잡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하는 생각은 버리고 힘을 다하여 남을 도웁시다. 욕심이 자취를 감추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순금인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아무리 험벗고 굶주린 상대라도 그것은 겉보기일 뿐 본 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면 이는 상대를 크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를 존경하며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현대는 물질만능에 휘말리어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물질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은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 큰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다 함께 길이길이 축복합니다.²⁷⁾

성철에 따르면 인간의 근본가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인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물질문명에 휘말리어 자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질문명에 함몰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면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기를 바로 보자는 말은 다시 말해 자기를 찾으라는 뜻이다. 현대인은 현대문명의 물질만능에 파묻혀 그 존엄성을 상실, 즉 자기자신을 잊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했으면 별로 길지 않은 문장 속에서 여덟번씩이나 반복해서, 더욱이 여덟 개의 소단락 각각의 앞머리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반복했을까? 자기를 바로 보자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해 부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뜻일 것이다.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석가모니의 선언보다 인간의 존귀함을 역설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절대성·존엄성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곧 부처이니 자기를 찾아 자신을 계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간성의 타락은 곧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망각한 것으로부터 유래된다. 그래서 성철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사상에 따르면 모든 진리는 자기 자신 속에 구비되어 있다. 욕심이 그 마음을 가리니까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욕심이 자취를 감춰 마음의 눈이 열려 자기를 바로 본다면, 아무리 험벗고 굶주린 사람이라도 그것은 겉모습일 뿐 본래 모습은 거룩하고 숭고하다고 성철은 말한다.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바로 현대문명의利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 예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27) 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 18~19쪽.

다. 그러나 성철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自己'를 법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가치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순금인 줄 알면 순금을 버리고 먼지인 물질을 따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무한한 자기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 합니다."²⁸⁾

5. 맺음말을 대신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현대문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현대문명의利器 모두를 거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의 다음 같은 발언은 시사적이다. "현대문명은 물질적 문명을 이룩했고 계속해서 큰 진보를 하고 있다. 여기에 내적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면 현대사회는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내적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예속되고 비록 인간이라 불린다 해도 우리는 기계부품이나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²⁹⁾

아무리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룩했음지라도 현대인의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상대적 빈곤감에만 쫓기어 내면세계는 도외시한 채 向外로만 치달린다고 한다면 달라이 라마의 지적대로 기계부품이나 다름없게 되는 셈이다. 가령 문명의 이기로 인한 편리한 삶을 포기하더라도 티베트의 경우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충만한 내면세계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예컨대 티베트의 경우처럼 현대문명의 이기가 갖춰지지 않았음지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현대인의 그 마음이 만일 평온하지

28) 성철, 앞의 책, 196쪽.

29) 크리스토퍼 기브, 『달라이 라마』, 8쪽.

않다면 그의 삶과 죽음 역시 평온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³⁰⁾ 그럴 경우 실성한 사람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절멸시키는 도구를 손에 잡은 것이나 진배없게 된다. 문제는 현대인이 자신의 내면세계는 도외시한 채 밖으로만 치달릴 뿐이기에 물질문명이 없는 생활 자체를 상정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티베트의 스승 노술 켄포의 다음과 같은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론을 맺고자 한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환상이고 덧없나니,
이원적으로 지각하기에 고통을 행복이라 여기는구나.
마치 칼끝에 묻은 벌꿀을 핥는 것처럼.
실재인 줄 굳게 집착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관심을 안으로 돌리게나, 그대 내 친구여!³¹⁾

〈參考文獻〉

- 『佛說譬喻經』(『大正藏』4권)
『臨濟錄』(서울:장경각, 1989)
장희익, 『삶과 온생명』(서울:술, 1998)
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합천:해인사출판부, 1987)
소갈 린포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 오진탁 옮김(서울:민음사, 1999)
크리스토퍼 기브, 『달라이 라마』(서울:중앙교육연구원, 1997)
황상의 편저,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서울:한울림, 1998)
허우성, 「정보사회의 사이버성:불교적 비판」(『철학과 현실』, 1996년 가을)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녹색평론』, 1996)
『태국의 불교·환경·평화운동가 술락 시바락사』(서울:정토회, 1998)
Sogyal Rinpoche,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Harper Collins, 1994)

30) 따라서 달라이 라마는 다음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삶이 폭력으로 가득차고 우리 마음이 성냄 집착 두려움과 같은 감정으로 흔들린다면 평화롭게 죽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온한 죽음을 원한다면 우리 마음과 삶의 방식 가운데 평화를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Sogyal Rinpoche, 앞의 책, ix · x).

31) Sogyal Rinpoche, 앞의 책, 31쪽.